

버스 타려 1km 안 걸어도 된다...담양 군민 '50년 숙원' 해결

개선동 마을 진입로, 좁고 구부러져 차 한 대 겨우 통과 '불편' 권익위 조정 끝 광주 북구-담양군, 진·출입로 확·포장 등 합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개선동 마을' 주민의 50여년 숙원이던 협소한 마을 진입로(사진)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마을 진입로가 확장되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입구에서 1km를 걸어나가야 했던 주민들의 수고가 줄어들게 된다.

2일 광주시 북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화 광주시 북구 부구청장, 정광선 담양 부군수 등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주민의 민원을 경

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명의 마을 주민들은 "12가구가 살고 있는 개선동 마을의 좁은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완공(1976년)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주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입로가 비좁아(너비 3~6m) 마을 버스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해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선 1km(광주시 북구 덕의동 석저마을 삼거리부터 담양까지 400m와 담양에서 개선동 마을 입구

까지 500m)어를 걸어 인근 북구 덕의동 석저마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충을 겪던 주민들은 그동안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광주시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지만, 수십년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북구와 담양군은 그동안 진입로를 확장을 계획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마을 진입로가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 인근지역에 속해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7년 북구는 무등산 생태 탐방원 주변 1차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당시 주민들이 담양군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진입로에 포함되지 못했다.

추후 담양군 개선동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알게 된 후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신청했다.

담양군은 2020년에 선정됐으나 북구는 우선순위에 밀려 선정되지 못했다. 담양군이 선정 됐지만, 개선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유산(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결국 자격이 상실됐다.

26명의 주민들은 결국 지난 3월 7일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북구와 담양군은 진·출입로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토사로 막힌 수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개선사지석등) 주민 사전협의의를 원활하게 마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해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싱그러운 무등산 인문축제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무등산 중심사 지구일원에서 열린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편백숲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중심 공생교육 새 모델 제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막 내렸다

22개국 여수서 공동선언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2일 막을 내렸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전남도·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 달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 5일 간 지역 중심 글로벌 교육을 향한 전남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초청 인사를 비롯해 학생·학부모·지역민 등 900여 명이 참석,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새 출발에 함께했다.

박람회의 마지막은 전 세계 22개국과 대한민국 교육지도자 등 32명이 참여한 글로벌 교육 공동선언 세리머니로 장식했다.

김 교육감·임 교육감과 몽골·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이탈리아·인도·일본·캐나다·태국·호주·케냐의 각국 교육지도자들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여수선언 지역 중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다짐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지역과 세계 학교의 연결을 통한 지역의 특수성 및 세계의 보편성 교육 실현, 실천적 환경 교육을 통한 지역과 녹색의 지구를 지키는 인재 양성, 지역과 국가·세계와 공생하는 포용적인 세계시민 양성 등을 약속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 시도교육감과 말레이시아·노르웨이·중국·튀르키예 교육지도자들은 온라인으로 공동선언에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임 교육감과 폐막을 공동선언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었다"며 "전남교육이 쏠아 올린 K-에듀의 신호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 5일간 누적 관람객은 예상을 뛰어넘어 40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 위반 여전히 높다

10대 중 6대 어린이 보호표지 불량 등...291대 적발

광주·전남의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6대는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1대 중 291대(61.8%)에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교육청·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대상으로 신고·등록한 시설 등 49개 기관에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471대를 점검했다.

광주에서는 총 82대를 점검해 안전의무 위반 차량 41대(50.0%)를 적발했으며, 전남에서는 389대 중 250대(64.3%)를 적발해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어린이 보호 표지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93건(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행기록장치 상태 불량 71건(13.6%), 승강기 상태 불량 64건(12.2%), 정지표시장치 상태 불량 55건(10.5%) 순이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74대 중 59대가 적발돼 적발율이 79.7%에 달했으며, 자가용 차량은 397대 중 232대(58.4%)가 적발됐다.

적발율은 2021년 68.4%(762대 중 521대), 2022년 60.0%(1655대 중 993대), 2023년 75.7%(1742대 중 1320대)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6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2023년의 경우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새로 시행돼 적발율이 급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범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통학버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 '평두메습지' 탐방 신청하세요

국립공원사무소, 15일까지

광주도심 인근 습지인 '평두메습지'가 랍사르 습지에 선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평두메습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평두메 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참가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화양동 530번지 일원의 산지형 내륙습지인 평두메습지는 늘 멸종위기종인 수달,

담비, 삿, 조롱박 등 보호종과 큰산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생물다양성 보고로 인정받아 지난달 도심형 국립공원 최초 랍사르 습지에 선정됐다.

이번 탐사에서는 광주시민,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물, 곤충, 조류, 양서류 등 각 분류군 탐사가 진행되고 8명씩 총 32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29일과 30일 하루동안 전문가와 함께 습지 내 동식물 조사에 함께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인 기자 kdi@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